

성서 히브리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관한 연구

권성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 구성소 명사문장’(Tripartite Nominal Sentences)이란 주어, 술어라는 통사소 외에 제 3의 구성 성분(대개 3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을 포함하는 명사문장을 말한다.

명사문장의 종류	두 구성소 명사문장	세 구성소 명사문장
히브리어	אֲנִי יְהוָה	כִּלְוֵם פְּרָעָה אֶחָד הוּא
뜻	여호와 나	(인칭대명사) 하나 바로 꿈
번역	나는 여호와다.	1. 바로의 꿈은 하나다.
		2. 바로의 꿈, 그것은 하나다.
		3. 바로 의 꿈은 하나다.
		4. 바로의 꿈은 하나 다.
		5. 바로 의 꿈은 하나 다. ¹⁾

국어학계에서 ‘이다’에 관한 논의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과 같이²⁾ 성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 - 2011 - 812 - A00244).

- 1) 표에서 예로 든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번역을 다섯 가지로 한 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 번역은 본인의 견해로 어떤 학자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볼드체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이다. 여기서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주어-술어-대명사’의 어순만을 소개했으나 실제로 ‘주어-대명사-술어’의 어순도 매우 많이 출현하며 ‘술어-대명사-주어’, ‘술어-주어-대명사’ 등의 어순도 나타난다.
- 2) 우리말 ‘이다’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대체로 ‘용언설’, ‘조사설’, ‘과생접사설’ 등의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아직도 국어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견해는 없으며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 글을 보라. 양정석,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2001), 337-393;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도서출판 한세본, 2006), 746-748.

서 히브리어 학계에서는 지난 100여 년간 지속적으로 ‘명사문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논쟁의 중심은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가 아닌 제3의 구성성분³⁾, 즉 ‘인칭대명사’ 혹은 ‘지시대명사’의 정체와 역할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제3 요소와 관련된 논쟁은 ‘성서 히브리어에는 계사(copula)가 있느냐’는 논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성서 히브리어에 계사가 있으며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의 제3 요소를 계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만일 제3 요소를 계사로 볼 수 없다면 그 정체와 역할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과제이다.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은 명사문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제에 비해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소수의 학자들만이 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목록이 제각각이며 통계 처리가 미숙하여 누락된 부분이 많고 어순에 따른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시하는 자료 자체에도 문제점이 다분히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서 히브리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제시하고, 체계적이며 비평적인 연구를 위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분명한 근거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에 많이 출현하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은 성경 해석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앞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문장에 대한 번역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섯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1.2.1. 국외 선행 연구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제3 요소는 계사이다. 2) 제3 요

3) 이 제3의 구성 성분을 이하 제3 요소라 부른다.

소는 계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학자들 중에도 계사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들은 계사로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계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계사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계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내린 계사의 정의에 따라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학자들과 그렇지 않은 학자들로 분류했다.

1)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학자들

- 사판⁴⁾, 브로켈만⁵⁾, 에발트⁶⁾, 놀데케⁷⁾, 메르베⁸⁾, 라빈⁹⁾, 윌키와 오코너¹⁰⁾, 앤더슨¹¹⁾.

2)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는 계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는 학자들

- 게제니우스¹²⁾, 오르난¹³⁾, 무라오카¹⁴⁾, 벤다비드¹⁵⁾, 알브레히트¹⁶⁾, 루빈슈

4) R. Sapan, *Haichud Hatachbiri Shel Lashon Hashira Hamiqrait Bitqufat Haclasil*(표준성서히브리어 운문체의 통사적 독특성, written in Hebrew) (Jerusalem: Hotsaat Qiryat-Seper, 1981), 92.
 5) C. Brockelmann, *Syntax*. vol. 2 in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Berlin: Verlag von Reuther & Reichard, 1913), 102-105.
 6) H. Ewald, *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Bundes* (Göttingen: Dieterich, 1870), 135-136.
 7) T. Nöldeke, *Compendious Syriac Grammar*, (2nded.) J. A. Crichton, trans. (Indiana: Eisenbrauns, 2001) 248- 249.
 8) C. H. J. Merwe van der, A. Jackie Naudé and Jan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56.
 9) C. Rabin, *Biblical Hebrew Syntax* (written in Hebrew) (Jerusalem: Shmuel Sokolnikov, 1996), 25-27.
 10)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131.
 11) F. I. Andersen,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gdon Press, 1970), 42.
 12) E. Kautzsch, *Gesenius' Hebrew Grammar*, the Late E. Kautzsch etc. eds., A. E. Cowley, rev. (Oxford: Clarendon Press, 1910), 453.
 13) U. Ornan, *A Simple Sentence* (written in Hebrew) (Jerusalem: Academon, 1979), 148.
 14) P.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print of First Edition with Corrections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573-576; 주웅-무라오카 성서히브리어문법, 김정우역 (2012), 627-630; T. Muraoka,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69, 199.
 15) A. Bendavid, *Biblical Hebrew and Sages Hebrew* (written in Hebrew), vol. 2 (Tel-Aviv: Dvir Co. Ltd, 1971), 724.
 16) C. Albrecht, "Die Wortstellung im habräischen Nominalsatz",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 (1888), 250.

타인¹⁷⁾, 로젠¹⁸⁾, 김슨¹⁹⁾, 니카치²⁰⁾, 드라이버²¹⁾, 츠비²²⁾.

성서 히브리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피상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사판과 츠비의 연구만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다루어졌다. 사판은 ‘표준성서히브리어 운문체의 통사적 독특성’이라는 제하의 책을 썼는데,²³⁾ 비록 운문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책 전체가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다룬다. 츠비 역시 ‘성서 히브리어 문장의 기능적 구조에서의 통사적 전환’이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을 썼는데,²⁴⁾ 논문 전체가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다룬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무라오카는 비록 사판과 츠비와 같이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책에서²⁵⁾ 사판의 견해를 비판하며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고, 이후의 논문에서는 츠비의 견해도 비판한다.

사판과 츠비와 무라오카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세 학자의 정의가 서로 달라 그들이 나열하는 목록들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다룬다.

1.2.2. 국내 선행 연구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경우 성서 히브리어 학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아쉽게도 국내의 성서 히브리어 학계는 그 활동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

17) E. Rubinstein, *A Nominal Sentence in Contemporary Hebrew* (written in Hebrew) Ph.D. Dissertation (Tel-Aviv University, 1969), 116-117.

18) H. B. Rosen, *Contemporary Hebrew* (Paris: Mouton, 1977), 169.

19) J. C. L. Gibson,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94), 180-181.

20) A. Niccacci, "Types and Functions of the Nominal Sentence",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243.

21)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in Hebrew*,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264-271.

22) Zewi T., "The Definition of the Copula and the Role of 3rd Independent Personal Pronouns in Nominal Sentences of Semitic Languages", *Folia Linguistica Historica* 17 (1996), 41-55.

23) R. Sapan, *Haichud Hatachbiri Shel Lashon Hashira Hamiqrait Bitqfat Haclasis* (표준성서히브리어 운문체의 통사적 독특성, written in Hebrew) (Jerusalem: Hotsaat Qiryat-Seper, 1981).

24) T. Zewi, *Hahasvot Hatachbiryot Hachruchot Bemivne Hapunkzionali Shel Hamishpat BeivritMiqrait* (성서 히브리어 문장의 기능적 구조에서의 통사적 전환, written in Hebrew), Ph.D. Dissertation (Hebrew University, 1991).

25) T. Muraoka,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5).

다. 최근 성서 히브리어를 전공한 신진학자들이 소수 등장하였으나 성서 히브리어 학계에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다룬 이들은 물론 그 용어를 언급하는 이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 주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국어학자들 가운데 ‘이다’에 대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말의 ‘이다’를 ‘계사’의 시각으로 보고 용어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말의 통사 구조상 어울리지 않으며, ‘지정사’, ‘접사’, ‘조사’ 등의 용어가 어울리나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가 하는 것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이다’와 관련된 국내의 여러 논의들은 본 연구에서 ‘계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새롭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성경의 책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9권이다.²⁶⁾ 본 연구의 주제인 ‘세 구성소 명사문장’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9권의 책에서 모든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를 그들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세 구성소 명사문장’과 관련된 문장들을 모두 선별해 내었다. 다음으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정체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두 구성소 명사문장은 물론 하야(=to be)문장²⁷⁾과 분사문장²⁸⁾을 비교 분석했으며 단어의 순서, 한정성, 악센트, 문장의 종류 등의 여러 요소와 함께 비교 분석을 했다. 또한 본 주제와 관련된 가장 비중 있는 연구를 한 학자들인 사판과 츠비와 무라오카의 목록을 본인의 목록과 비교하며 그들의 견해를 자세히 분석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관련 소프트웨어들인 어코던스 9.5, 바이블웍스 9,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26) 본 연구에서 조사의 근거로 삼은 히브리어 성경은 BHS 1997년판이다.

27) 일반적으로 성서 히브리어의 문장은 동사문장과 명사문장 두 가지로만 분류하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종류를 세분화시켜 ‘동사문장’과 ‘명사문장’ 외에도 ‘하야문장’과 ‘분사문장’을 추가했다. ‘하야문장’이란 성서 히브리어의 문장 중 어근 π (h), \cdot (y), \cdot (y)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을 뜻한다.

28) 분사문장이란 명사로 사용된 분사가 아닌 술어적 동사로 사용된 분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와 동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를 구분시키지 않고 모두 ‘명사문장’의 범주에 넣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법은 형태론적인 시각에서 바라 본 구분법이며 통사·의미론적으로 볼 때 동사적으로 사용된 분사문장은 명사문장보다는 동사문장에 더 가깝다.

2.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분포

2.1.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분포

세 구성소 명사문장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이므로 본 연구를 위해 선별된 9권의 책에서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을 뽑아 그들의 역할과 성격을 분류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²⁹⁾.

그룹 A: 주어로 사용된 것

그룹 A1: 단일 주어로 사용된 것

예) 주어-술어의 순서: הוּא יְהוָה אֱלֹהֵינוּ (대상 16:14)

예) 술어-주어의 순서: צְדִיק וְיָשָׁר הוּא (신 32:4)

그룹 A2: 복합 주어로 사용된 것

그룹 A2-1: ‘감후’(그도 역시)와 같은 문장

예) 1인칭대명사: וְאַעֲשֶׂה־בְּךָ גַּם־אֲנִי (신 12:30)

예) 2인칭대명사: לְמַה תִּלָּךְ גַּם־אַתָּה אֲתָנוּ (삼하 15:19)

예) 3인칭대명사: וְנִשְׁמָעָה מִה־בְּפִיו גַּם־הוּא (삼하 17:5)

그룹 A2-2: ‘후베’(그와)와 같은 문장

예) 1인칭대명사: אֲנִי וְהָאֱשֶׁה הַזֹּאת יֹשְׁבַת בְּבֵית אַחֲדֶךָ (왕상 3:17)

예) 2인칭대명사: צָא אֲתָה וְכֹל־הָעָם אֲשֶׁר־בְּרַגְלֶיךָ (출 11:8)

예) 3인칭대명사: וְתִלָּךְ לְאַרְצָהּ הִיא וְעַבְדֶּיהָ (대하 9:12)

그룹 B: 단일 술어로 사용된 것

예) וְאֲנִי־הוּא אֲשֶׁר־הִטָּאתִי (대상 21:17)

그룹 C: 복합 목적어로 사용된 것

그룹 C1: 직접목적어

예) בְּרַכְנִי גַּם־אֲנִי אָבִי (창 27:34)

그룹 C2: 간접목적어

예) וּלְשֵׁת גַּם־הוּא יִלְד־בֶּן (창 4:26)

29)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목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분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했으며, 실제로 다른 학자들의 목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룹 D: 복합 소유격으로 사용된 것

예) בְּמָקוֹם אֲשֶׁר לָקְחוּ הַכִּלְבִּים אֶת־דָּמָם נִבְּוֹת יְיָ לָקְחוּ הַכִּלְבִּים אֶת־דָּמָךְ גַּם־אֶתָּה (왕상 21:19)

그룹 E: 특수 문장

그룹 E1: ‘that is’(즉)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

예) וַתֵּמַת רָחֵל וַתִּקְבֹּר בְּדֶרֶךְ אֶפְרָתָה הִוא בֵּית לָחַם: (창 35:19)

그룹 E2: 의문대명사와 함께 사용된 문장

예) לָמָּה־זֶּה אַתָּה רֵץ בְּנִי (삼하 18:22)

그룹 E3: 세 구성소 문장 (110회)

그룹 E3-1: 세 구성소 명사문장(92회)

2.1.1. 3인칭대명사 (88회)

1) 주어-대명사-술어의 순서: 36회

창세기 - 2:14, 19; 9:18; 15:2; 25:16; 27:38; 42:6

레위기 - 23:2; 25:33

민수기 - 3:20, 21, 27, 33; 16:7

신명기 - 3:22; 4:35, 39; 7:9; 9:3; 10:9, 17; 12:23; 18:2;
1:6; 31:8

사무엘하 - 7:28; 23:18

열왕기상 - 8:60; 18:39(X2)

역대상 - 1:31; 8:6; 17:26; 22:1

역대하 - 20:6; 33:13

예) וְגַם בְּנֵי יִשְׁמָעֵאל (대상 1:31)

2) 주어-술어-대명사의 순서: 48회

창세기 - 30:33; 31:16, 43; 34:21, 23; 40:12, 18; 41:25, 26(X3), 27; 45:20;
47:6; 48:5

출애굽기 - 3:5; 16:36; 32:16-1, 16-2; 34:14; 39:5

레위기 - 11:10, 12, 20, 23, 27, 41; 13:15; 17:11, 14(X2); 27:28, 30

민수기 - 11:7; 13:3, 32; 18:9; 19:15; 21:26; 32:4

신명기 - 1:17; 4:24; 11:10; 14:19; 30:11

사무엘하 - 21:2

열왕기상 - 20:3(X2)

예) הם והגִבְעֹנִים לֹא מִבְּנֵי יִשְׂרָאֵל הֵמָּה (삼하 21:2)

3) 술어-대명사-주어의 순서: 3회

창 15:4; 21:29; 27:33

예) מָה הָיָה שָׁבַע כְּבִשְׁתְּ הָאֱלֹהִים (창 21:29)

4) 술어-주어-대명사의 순서: 2회

וְהוּא כֹחֲמָאֵת הָאֲשֶׁם הוּא (레 14:13)

וּבַעֲשׂוֹר לַחֹדֶשׁ הַשְּׁבִיעִי הַזֶּה יוֹם הַכַּפָּרִים הוּא (레 23:27)

2.1.2. 지시대명사(4회): 주어-대명사-술어의 순서

וְהָאֵתָה זֶה בְּנֵי עֲשׂוֹ (창 27:21, 24)

:וְהָאֵתָה זֶה אֲדַנִּי אֵלֶיהוּ: (왕상 18:7)

:וְהָאֵתָה זֶה עִבְרַיִשְׂרָאֵל: (왕상 18:17)

그룹 E3-2: 세 구성소 동사문장(13회):

모두 주어-대명사-동사의 순서

창 3:12; 24:7; 레 17:11; 민 35:19, 33; 신 1:30, 38; 19:5; 삼하 14:19;

왕상 5:19; 8:19; 대상 28:6; 대하 6:9

예) בָּנָךְ הֵיטָא מִחֻלְצֵיךָ הוּא יִבְנֶה הַבַּיִת לְשָׁמַי: (대하 6:9)

그룹 E3-3: 세 구성소 분사문장(3회):

주어-대명사-분사의 순서

신31:3(X2); 대하34:16

예) וְהָיָה אֵלֶיךָ הוּא עִבְרַיִשְׂרָאֵל (신 31:3)

그룹 E3-4: 세 구성소 하야문장(2회):

주어-대명사-하야의 순서

וְהָיָה אֲשֶׁר נִמְצָא תְּגִיֵעַ בְּיָדוֹ הוּא יִהְיֶה לִּי עֹבֵד (창 44:17)

וְאֶבְשִׁי אֶחְיִיאוּב הוּא הָיָה רֹאשׁ הַשְּׁלוּשָׁה (대상 11:20)

위 분류에 따르면 그룹 E3-1의 92문장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이라 할 수 있다.

2.2. 본 연구의 목록과 사판과 츠비의 목록과의 비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판과 츠비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학자들이며 그들만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목록과 본 연구의 목록을 서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우선 그들의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목록을 오경에서만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³⁰⁾

2.2.1. 사판의 목록과의 비교³¹⁾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사판의 목록은 본 연구에서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는 창세기 20회, 출애굽기 3회, 레위기 8회, 민수기 8회, 신명기 11회로 오경에서 50회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것과 비교해 볼 때 무려 32회나 차이가 난다. 무라오카 역시 사판의 통계의 불완전함에 대해 지적하였다³²⁾.

사판의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3회)³³⁾: 창 42:6하; 24:44; 레 15:2

사판의 목록에 추가되어야 할 것 (29회): 27:21, 24, 38; 34:23; 41:26, 27; 45:20; 48:5; 출 32:16; 34:14; 39:5; 레 11:10, 20, 23, 27, 41; 13:15; 17:14; 23:27; 민 13:3; 18:9; 19:15; 32:4; 신 9:3; 10:17; 11:10; 14:19; 30:11; 31:3상

2.2.2. 츠비의 목록과의 비교³⁴⁾

츠비는 창세기 28회, 출애굽기 13회, 레위기 10회, 민수기 11회, 신명기 20회로 오경에 총 82회를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분류시키고 있다. 전체 수치상으로는 본 연구의 것과 비슷하나 사판의 것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있다.

30) 오경에 나타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목록만 비교해 보아도 사판과 츠비가 선별한 목록의 문제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31) R. Sapan, *Haichud Hatachbiri Shel Lashon Hashira Hamiqrait Bitqufat Haclasiit*(표준성서히브리어 운문체의 통사적 독특성, written in Hebrew), 238.

32) T. Muraoka,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208. 무라오카는 사판의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목록 중 138 경우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33) 사판이 제시하는 세 문장은 모두 세 구성소 명사문장이 아닌 두 구성소 명사문장이다.

34) T. Zewi, *Hahasvot Hatachbiryot Hachruchot Bemivne Hapunktzionali Shel Hamishpat BeivritMiqrait* (성서 히브리어 문장의 기능적 구조에서의 통사적 전환, written in Hebrew), Doctoral Dissertation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91), 86-98.

츠비의 목록 중 삭제되어야 할 것(32회)³⁵⁾: 창 3:12, 13; 12:18; 16:8; 18:13; 26:10; 24:7, 44; 25:32; 27:20; 32:30; 33:15; 42:28; 44:17; 출 2:20; 5:22; 12:2; 14:12, 5; 17:3; 34:10; 민 1:4; 11:20; 14:41; 35:19, 33; 신 1:30; 18:22; 19:5; 31:3, 8; 32:39

츠비의 목록 중 추가되어야 할 것(33회): 창 2:14, 19; 9:18; 15:2; 21:29; 27:38; 34:21, 23; 41:26상, 26중, 26하, 27; 출 32:16; 34:14; 39:5; 레 11:12, 23, 27; 13:15; 14:13; 17:14; 23:27; 27:28; 민 3:20, 21, 27, 33; 13:3; 신 4:39; 7:9; 14:19; 31:3상, 3하

츠비와 사판의 목록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떠한 문장을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분류시키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견해 차이를 배제하고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 내에서만 통계 자료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크다. 동사문장들과 특수 문장들을 제외하고, 또한 단어의 순서를 무시하고 세 구성소 명사문장만을 비교해 볼 때도 사판의 것에는 31회가 누락되어 있으며 츠비의 것에는 33회가 누락되어 있다. 오경에서만 약 40%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 수집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세 구성소 명사문장과 계사(copula)

3.1. 계사의 정의

본 연구의 첫 번째 과제인 ‘성서 히브리어에 계사가 있으며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의 제3 요소는 계사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계사’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계사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계사와 관련된 문장을 보는 시각들이 다르며,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통계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사에 대한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사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혼동의 실례는

35) 츠비가 세 구성소 명사문장으로 제시하는 문장 중 상당수가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그룹 E2: 의문대명사와 함께 사용된 문장이다. 이 문장이 세 구성소 명사문장과 다른 점은 항상 의문대명사와 함께 온다는 점, 항상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지시대명사가 항상 주어와 술어의 가운데 위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츠비가 제시하는 이러한 문장들은 문장의 성격상 세 구성소 명사문장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따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과 같다. 사판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를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둘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오르난이 제3 요소를 계사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제3 요소를 계사로 보지 않는 견해에 오르난을 분류시킨다.³⁶⁾ 이것은 적어도 오르난과 사판 사이에 계사의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사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계사라는 용어는 바르텔무스의 주장과 같이³⁷⁾ 성서 히브리어에 도입해서는 안되는 용어인가? 우선 계사에 대한 여러 사전들의 정의를 살펴볼 때³⁸⁾ 모든 사전들의 정의에서 공통되는 점은 계사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전도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영어의 ‘be’와 같은 감각이라는 것도 추상적일 뿐 구체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계사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오해를 없애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계사라는 용어가 심층적인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어와 술어만으로 구성된 모든 두 구성소 명사문장은 계사문장이 아니다. 즉 두 구성소 명사문장에는 계사가 없다.

계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만 하는데, 기능적인 것과 의미론적인 것이 그것이다. 먼저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계사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적 기능 외에 ‘강조’나 ‘추가 배치된 구성성분을 되찾는 대명사’와 같은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는가? 인도-유럽어에서 유래된 계사라는 용어의 개념에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만이 있다. ‘to be’와 같은 감각에서 강조와 같은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강조’나 ‘되찾는 대명사’와 같은 기능을 언급하는 이라면 이미 계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르난은 계사가 강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사판은 강조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계사로 볼 수 없다

36) R. Sapan, *Haichud Hatachbiri Shel Lashon Hashira Hamiqrait Bitqufat Haclasis*, 127.

37) R. Bartelmus,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äischen “Allerweltswortes”* (St Ottilien 1982), 97.

38) 계사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살펴본 사전들은 다음과 같다: 웹스터 사전(1935: 589), 옥스포드 영어 사전(1989), 914; 루틀리지 언어 및 언어학 사전(1996) 105; HS(Hartmann & Stork) 언어 및 언어학 사전(1972), 55; 에벤쇼산의 새로운 사전(히브리어, 1997), 24; 언어 및 문법 용어 사전(히브리어, 1992), 51; 히브리어 백과사전(1988), 639; Trask 언어학에서의 문법 용어 사전(1993), 64; K. Hengeveld, *Non-verbal Predication*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2), 32; L. Stassen,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1997), 65; R. Pustet,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5.

고 보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기능을 언급하는 이들은 오르난 외에도 벤다비드, 무라오카, 알브레히트 등이다.

다음으로 의미론적 측면을 살펴보자. 계사는 의미론적으로 자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계사와 관련 있는 단어인 영어의 be나 히브리어의 하야(הָיָה)에는 의미론적 범주가 세 개 있는데 ‘이다’, ‘있다’, ‘되다’이다.³⁹⁾ 이 중 ‘있다’와 ‘되다’는 의미론적으로 동사성이 강하며 그 자체로 술어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주어와 술어를 연결해준다는 계사의 기본 정의를 고려할 때 위의 범주 중 ‘있다’와 ‘되다’는 계사가 되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사를 언급할 때 우리는 ‘이다’라는 범주만을 고려 대상에 놓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계사’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계사란 표면적으로 특정한 단어로 나타나면서 우리말의 ‘이다’와 같이 자체 의미를 가지지 않고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3.2.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의 정체

세 구성소 문장은 명사문장은 물론 동사문장, 분사문장, 하야문장에서도 나타나며 총 110회(삼하-대하 23회, 오경 87회) 나타난다. 문장의 범주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장의 범주	명사문장	동사문장	분사문장	하야문장	합계
삼하-대하	16 (69.6%)	5 (21.7%)	1 (4.3%)	1 (4.3%)	23 (100%)
오경	76 (87.4%)	8 (9.2%)	2 (2.3%)	1 (1.1%)	87 (100%)
합계	92 (83.6%)	13 (11.8%)	3 (2.7%)	2 (1.8%)	110 (100%)

문장의 범주에 따른 세 구성소 문장의 분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구성소 문장은 명사문장을 매우 선호한다는 것이다. 세 구성소문장이 명사문장을 매우 선호한다는 사실은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계사라

39) 계사와 관련된 의미론적 범주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을 위해서는 줄고(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69-91)을 보라.

는 것을 지지하기 어렵게 한다. 여기서 전체 명사문장에 대한 세 구성소 문장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 삼하-대하에서 명사문장은 모두 1,164회 나타나는데 세 구성소 명사문장은 16회가 나타나므로 그 비율은 1.4%이다. 오경은 명사문장 2044회 중 76회가 세 구성소 명사문장이므로 그 비율은 3.7%이다. 삼하-대하와 오경을 모두 합치면 명사문장에 대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총 비율은 2.9%이다.

이 통계는 주어와 술어만으로 구성된 두 구성소 명사문장의 비율이 97.1%인 반면, 주어와 술어 외에 또 다른 제3의 구성요소인 제3 요소를 포함하는 문장, 즉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비율은 2.9%라는 것이다. 만일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계사라면 2.9%의 문장에만 제3 요소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97.1%의 문장에도 제3 요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⁴⁰⁾ 따라서 2.9%라는 낮은 비율은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계사가 아닌 다른 정체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계사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문장이 동사문장에서도 출현한다는 사실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어떤 계사도 동사와 함께 출현할 수 없다. 인도-유럽어에서 동사와 함께 출현하는 계사는 찾아볼 수 없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계사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문장이 하야문장에서도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계사의 정의와 성격을 살펴 볼 때 계사는 영어에서 ‘be’가 대표적이고 히브리어에서 ‘하야’가 대표적인 단어이므로 세 구성소 문장에서의 제3 요소가 ‘하야’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자체 모순을 이루는 것이다. 세 구성소 하야문장과 세 구성소 동사문장의 다음 예들을 보라.

הָאִישׁ אֲשֶׁר נִמְצָא הַגְּבִיעַ בְּיָדוֹ הוּא יְהוָה לִי עֶבֶד (창 44:17)

שְׁלֵמָה בְּנֵד הוּא יְבִנָּה בֵּיתִי וְחֻצְרוֹתַי (대상 28:6)

그러므로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가 계사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두 구성소 명사문장과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비교해 볼 때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비율이 전체 문장에서 3% 이하로 매우 낮다는 점.
- (2) 세 구성소 문장은 명사문장뿐 아니라 동사문장과 분사문장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하야문장에서도 나타난다는 점.

40) 왜냐하면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학자들에 의하면 세 구성소 명사문장은 두 구성소 명사문장과 동일한 속성의 문장이기 때문이다.

4.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정체와 역할

이상에서 우리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는 계사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먼저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는 계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사의 정의(3.1항)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어와 술어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외의 역할을 할 경우에 이는 이미 계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다른 역할을 한다고 언급은 하면서도 여전히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다. 따라서 다른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과 그렇지 않은 학자들 사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제3 요소를 계사(copula)로 부르면서 다른 기능을 언급하는 견해

제3 요소를 계사로 부르면서 다른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대표적인 이들은 오르난, 무라오카, 벤다비드이다.

오르난은 제3 요소를 계사로 부르면서도 3인칭대명사의 형태로 사용된 계사는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사를 두 가지, 즉 3인칭대명사의 형태로 사용된 계사와 하야 동사의 완료,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계사, 이렇게 둘로 나누고 그 둘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전자는 강조의 역할이며 후자는 술어조사(predicator-auxiliary)로 본다⁴¹⁾.

무라오카도 오르난과 마찬가지로 강조적 역할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무라오카가 언급하는 계사라는 용어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 그는 셈어에서의 계사는 인도-유럽 문법에서 사용하는 계사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⁴²⁾ 그는 인도-유럽어에서와 같은 용도로서의 계사의 존재를 부정하며 심지어 현대 히브리어에서조차도 그러한 존재를 부인한다.⁴³⁾ 무라오카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3가지, 즉 SCP, SPC, PCS로 분류를 하고 제3 요소는 바로 앞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⁴⁾ 그러나 그가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니카치, 츠비 같은

41) U. Ornan, "Syntax", *Encyclopedia Judaica*, Vol. 8 (Jerusalem: Keter, 1971), 148.

42) T. Muraoka,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69.

43) Ibid., 199.

44) T. Muraoka,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s press, 1985), 67. 여기서 SCP는 주어-계사(Copula, 제3 요소)-술어의 순서를 말하고 SPC는 주어-

이들은 무라오카를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학자로 취급한다. 비록 오르난과 무라오카가 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견해에 그들을 분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벤다비드는 제3 요소를 계사로 부르지만 계사가 단지 하야동사의 현재형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는 계사가 가운데 오는 문장과 계사가 끝에 오는 문장을 구분하고 그 두 문장에서의 계사의 역할을 다른 것으로 본다. 즉, 계사가 가운데 오는 문장에서의 계사의 역할은 정체를 판명하는 역할을 하고 계사가 끝에 오는 문장에서의 계사는 소속(여러 개 중의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⁴⁵⁾ 특히 계사가 가운데 오는 문장에서의 계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그는 어느 정도 계사의 강조적 역할에 대해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계사로 사용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를 구분하면서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한다. 즉 인칭대명사는 정체판명(identifying)의 역할을 하지만 지시대명사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⁴⁶⁾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는 지시대명사가 계사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⁴⁷⁾ 그러나 벤다비드가 정체판명 문장이라고 분류한 문장 중 지시대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이 발견된다(창 27:21, 24)⁴⁸⁾.

알브레히트는 제3 요소를 계사로 부르면서도 주어, 술어가 한정되어 있을 때 주어와 술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며, 이 때 제3 요소는 절대적으로 명사적 성질을 유지한다고 본다.⁴⁹⁾ 제3 요소의 명사적 성질에 대해서는 벤다비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⁵⁰⁾.

4.2. 제3 요소를 계사(Copula)로 부르지도 않고 다른 기능을 언급하는 견해

4.2.1. 제3 요소는 주어, 혹은 술어를 대표하거나 강조적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

술어-계사의 순서이며 PCS는 술어-계사-주어의 순서를 말한다.

45) A. Bendavid, *Biblical Hebrew and Sages Hebrew* (written in Hebrew), 724.

46) *Ibid.*, 761.

47) *Ibid.*, 765.

48) 이러한 문장들은 벤다비드의 견해와 용어에 따르자면 계사로 사용된 문장들이다.

49) C. Albrecht, 1888, 250.

50) A. Bendavid, *Biblical Hebrew and Sages Hebrew* (written in Hebrew), 722.

제3 요소는 주어, 혹은 술어를 대표한다고 보는 견해와 강조적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 사이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전자는 제3 요소의 정체에 해당하고 후자는 제3 요소의 기능과 역할에 해당한다. 제3 요소가 주어, 혹은 술어를 대표한다고 보는 학자들 가운데 제3 요소의 강조적 기능을 언급하는 이가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가 있다.

루빈슈타인은 제3 요소가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했지만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계사로 변했다고 본다⁵¹⁾. 로젠은 계사의 위치가 성경 시대 이후의 히브리어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보며 성서 히브리어에서의 인칭대명사는 계사의 역할이 아니라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⁵²⁾. 김슨은 제3 요소를 ‘추가 배치’(extraposition)와 ‘격결림 구조’(고리형 구조, casus pendens)⁵³⁾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주어를 ‘추가 배치’된 것으로 보고 뒤에 나오는 제3 요소를 앞에 나온 주어를 ‘되찾는 대명사’(resumptive pronoun)로 본다.⁵⁴⁾

4.2.2. 예측 이론

드라이버는 시편 44:5(אַתָּה הוּא מַלְכִי)FMF 예로 들면서 אַתָּה와 אֲנִי 사이의 הוּא를 계사로 보는 대신 두 가지, 즉 앞의 대명사를 강조하는 것과 뒤의 술어를 예측하는 것(You are he - my king)으로 보았다. 이 이론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이며 무라오카는 이러한 이론을 순진한 이론(naive theory)이라고 비평한다.⁵⁵⁾

4.2.3. 제3 요소는 주어와 술어를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

제3 요소는 논리적, 통사적 혼동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주어와 술어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제3 요소가 끝에 위치하는 문장구조에서는 설명이 잘 안된다.

4.2.4. 츠비의 견해에 대한 비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조, 추가 배치, 예측 이론, 주어와 술어의 구분

51) E. Rubinstein, *A Nominal Sentence in Contemporary Hebrew* (written in Hebrew), 116-117.

52) H. B. Rosen, *Contemporary Hebrew*, 169.

53) 그러나 ‘casus pendens’는 잘못된 용어 사용 중 하나이다. 무라오카의 지적대로 ‘nominativus pendens’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용어이다. T. Muraoka,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1999, 203.

54) J. C. L. Gibson,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1, 180-181.

55) T. Muraoka,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68.

등 제3 요소를 보는 견해는 다양하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연구를 한 학자는 사판과 츠비 두 사람으로, 사판은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학자이고 츠비는 제3 요소를 계사로 보지 않는 학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 요소를 계사로 보지 않으므로 계사로 보지 않는 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츠비의 이론을 중심으로 비평해 보고자 한다.

츠비는 제3 요소의 강조적 역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강조라고 하는 것은 통사적 설명이 아니라고 한다.⁵⁶⁾ 츠비는 모든 명사문장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A, A2, B, C, D) 제3 요소 문장과 관련된 것은 3가지 즉 B, C, D로 본다.

제3 요소 문장에 대한 츠비와 무라오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응될 수 있다(여기서 볼드체와 음영 표시가 된 것은 제3 요소임).

츠비의 유형	무라오카의 유형
B (주어, 술어절<술어- 주어 >)	SPC
C (술어절<술어- 주어 >, 주어)	PCS 혹은 SCP
D (주어, 술어절< 술어 -주어>)	없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츠비와 무라오카의 분류는 서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둘의 분류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츠비의 문장 분류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1) 주어와 술어의 선정 기준

츠비의 주어, 술어 선정은 C와 D 유형에서 문제가 많다. 츠비 자신은 본인의 B와 C 유형에 대해서 ‘무라오카는 주어와 술어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C 유형은 무라오카의 PCS와 병행된다고 하는데⁵⁷⁾ 츠비의 C 유형 중 상당수가 무라오카의 SCP 유형이다.⁵⁸⁾

츠비의 D 유형에서의 주어, 술어 선정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그가 예로 드는 창세기 42:6(וַיֹּדֶעַ הוּא הַשְּׂלִיט)의 경우 ‘הוא’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השליט’가 새로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הוא’를 술어절의 주어로,

56) T. Zewi,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G. Goldenberg and S. Raz, eds.,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147.

57) Ibid., 159-160.

58) 츠비의 C 유형에 대한 예들 중 וַיִּשְׁמַע אֱלֹהִים הֵם בְּנֵי יִשְׂמָעָאֵל (창 25:16), אֱלֹהִים הֵם הָאֱלֹהִים הַמְּבִרָּים (삼상 4:8), אֱלֹהִים הֵם הָאֱלֹהִים הַמְּבִרָּים (왕하 19:15), 사 37:16, 시 44:5, 잠 30:24, 잠 30:29 등의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를 술어에 분류시키지만 무라오카는 그것을 주어로 보며 그 문장을 SCP 유형으로 분류한다.

‘שִׁלְיָהּ’를 술어절의 술어로 보는데, 이것은 주어, 술어를 선정할 때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츠비 자신의 언급⁵⁹⁾과 비교해 볼 때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술어절의 순서를 모두 ‘술어-주어’로 보았는데, 이것은 ‘술어-주어’의 순서가 명사문장의 기본 순서라고 하는 그의 선입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⁶⁰⁾ 이러한 선입관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한정동사까지도 주어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⁶¹⁾

(2) 문장 분류

1) ‘니카치’의 지적과 같이⁶²⁾ 기본적으로 정반대의 순서를 갖는 술어-주어, 주어-술어에 대해서는 같은 문자(A, A2)를 사용했고, 서로 반대의 순서만을 갖는 B, C 유형에 대해서는 B, B2로 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동일한 순서를 갖는 B와 D 유형을 다른 문자로 사용한 것 등이 어색해 보인다.

2) 모든 명사문장을 5가지 범주로만 놓고 분류한 그의 분류에도 문제가 있다. 기본 문장(A, A2) 외의 다양한 문장들은 모두 B, C, D, 즉 추가 배치된 문장 중 하나로 보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쪼개진 문장, 단일 주어 문장, 2중 목적어 문장, 2중 소유격 문장, ‘즉’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 등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문장들이 모두 추가 배치된 문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츠비는 세 구성소 동사문장과 의문사와 함께 한 특수 문장들도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범주에 집어 넣는다. 또한 1인칭 대명사가 반복 사용된 문장(וְאֵנִי, וְאֵנִי, וְאֵנִי, 신32:39)도 추가 배치된 문장으로 B 유형에 분류한다.

3)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왜 C 유형에서는 술어로서 사용된 인칭대명사의 유형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술어절의 순서가 항상 술어-주어라고 하는 츠비의 주장에 의하면 E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유형은 나오지 않는다.

B 유형 (주어, 술어절<술어-주어>) C 유형 (술어절<술어-주어>, 주어)

D 유형 (주어, 술어절<술어-주어>) E 유형 (술어절<술어-주어>, 주어)

(여기서 볼드체와 밑줄은 제3 요소를 가리킴)

59) Ibid., 145.

60) Ibid., 154. 그는 명사문장의 유형을 분류할 때 기본 유형으로 술어-주어의 순서를 A로 분류하고 주어-술어의 순서를 A2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도 술어-주어의 순서를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61) 그는 창 3:12(וְהָאִשָּׁה, אָמַר, נִתְּתָה עִמּוֹי הָיָא נְתַנְהָלִי מִן־הָעֵץ)에서 ‘נְתַנְהָלִי מִן־הָעֵץ’를 술어절의 주어로 본다.

62) A. Niccacci, “Types and Functions of the Nominal Sentence”, C. L. Miller, 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 Linguistic Approaches* (Indiana: Eisenbrauns, 1999), 223.

4) 츠비가 분류한 D 유형 가운데 대부분은 세 구성소 동사문장, 즉 3인칭대 명사와 함께 사용된 동사문장으로 이 문장은 제3 요소 문장이 아니라 단일 주어와 함께 사용된 동사문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츠비는 이 유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 유형을 SCP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⁶³⁾ 많은 학자들은 이 유형을 동사문장으로 분류하며 세 구성소 명사문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츠비는 주어, 술어 선정 문제에 있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츠비의 문장 분류 유형은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니카치와 같은 학자 이외에는 어떤 학자와도 비교할 수 없다.

(3) 추가 배치

츠비는 B, C, D 유형 모두에서 통사적 주어를 추가 배치 된 것으로 본다. 츠비가 말하는 B, C, D 유형에서 추가 배치 된 것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B 유형 **וְכָל אֲשֶׁר-אַתָּה רֹאֶה לִי-הוּא** (창 31:43) 문장에서는 **וְכָל אֲשֶׁר-אַתָּה רֹאֶה**가 추가 배치 된 것으로 본다.

C 유형 **וְהָאֵתָה זֶה בְּנֵי עֶשָׂו** (창 27:21, 24) 문장에서는 **וְהָאֵתָה**가 추가 배치 된 것으로 본다.

D 유형 **הָאִשָּׁה אֲשֶׁר נָתַתָּה עִמָּדִי הִוא נְתַנָּה-לִי מִן-הָעֵץ עִמָּדִי** (창 3:12) 문장에서는 **הָאִשָּׁה**이 추가 배치 된 것으로 본다.

츠비뿐 아니라 제3 요소를 계사가 아니라고 보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앞에 나온 단일 주어를 추가 배치로 보는 견해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추가 배치’란 말은 ‘기본문장’에서 덧붙인 것이란 개념이다. 따라서 그 추가된 요소를 제거해도 기본 문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츠비가 말하는 추가 배치들을 제거해 보면 기본 문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츠비의 B, C, D 유형에서 제거해도 기본문장이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요소들은 모두 대명사(인칭, 지시)들이다. 따라서 추가 배치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제3 요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츠비의 문장 분류와 분석에는 문제가 많으며 추가 배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무라오카와 같이 SCP, SPC, PCS와 같은 용어 사용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가

63) T. Zewi,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163.

배치를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츠비는 제3 요소가 강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통사적 설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3 요소를 단순 계사가 아닌 강조의 감각으로 추가 배치 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통사적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격결림 구조(고리형 구조, casus pendens)’라는 용어도 비슷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제3 요소 문장을 ‘격결림 구조’로 보는 이들은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격결림(casus pendens)’으로 보고 뒤에 오는 대명사를 되찾는 대명사로 본다. 그러나 앞에 나온 주어는 매달려 있는 (pendens), 그래서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요소가 아니라 절대로 떨어질 위험이 없는 매우 안정되어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매달려 있는 것은 앞에 나온 주어가 아니라 뒤에 추가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4.3.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정체와 역할

제3 요소가 계사가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추가 배치’나 ‘격결림 구조(고리형 구조)’란 말을 사용한다. 그들은 제3 요소 앞에 나온 단일 주어에 추가 배치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 요소는 그 추가 배치 된 것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제3 요소를 ‘계사’로 보는 견해뿐 아니라 ‘추가 배치’와 ‘되찾는 대명사’로 보는 견해에도 반대한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추가 배치’란 말에 어울리는 요소는 앞에 나온 핵심 주어에 아니라 제3 요소 자체이다. 그런 면에서 본인은 제3 요소의 역할이 강조라고 하는 견해를 따른다. 제3 요소의 강조적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주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급했으며 무라오카만이 ‘술어’를 강조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무라오카와 같이 주어-대명사-술어의 순서에서는 주어의 강조하는 것이며 주어-술어-대명사의 순서에서는 술어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어의 순서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정성 때문이지 강조하는 요소 때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의 ‘강조적 역할’은 주어나 술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한정성’이라는 요소를 주의 깊게 고려한 결과 얻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의 단어 순서는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⁶⁴⁾ 즉 주어-대명사-술어의

64) 한정성의 개념과 등급 매김에 대해서는 졸고(권성달, “성서 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의 한정

순서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동일하나 주어-술어-대명사의 순서에서는 술어의 한정성이 주어의 한정성보다 낮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예외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어-대명사-술어’의 순서를 갖는 예들(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동일)

: וְהִנֵּהר הָרִבְעִי הוּא פָּרַח: (창 2:14)⁶⁵⁾

אֲתָה-הוּא, הָאֱלֹהִים (삼하 7:28)

‘주어-술어-대명사’의 순서를 갖는 예들(술어의 한정성이 주어의 한정성보다 높음)

וְהָיָה אֱלֹהֶיךָ אֱשׁ אֲכֹלָה הוּא (신 4:24)

וְהִבְרַךְ לִי-הוּא (왕상 20:3)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의 역할은 주어와 술어의 평형을 잡아주는 것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제3 요소는 저울추와 같이 주어와 술어의 평형을 잡아주면서 그 문장 전체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주어와 술어의 무게가 동일할 경우, 즉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어와 술어의 가운데에서 그 둘을 들어 올려주며 주어보다 술어의 무게가 가벼울 경우에는 술어 쪽에서 한정성이 약한 술어를 도와주면서 그 둘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평형을 잡아주는 역할은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세 구성소 동사문장에서는 한정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조의 역할은 세 구성소 동사문장이나 세 구성소 명사문장 모두에게 해당된다. 세 구성소 동사문장에서는 이미 주어가 동사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사문장에서 동사가 먼저 오는 일반적 경향을 무너뜨려 주어를 부각

성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제29호 [2011], 7-32)을 보라.

65) 이 문장은 에덴에서 시작되는 네 강의 이름을 소개하는 문맥 중 넷째 강을 서술하는 내용이다. 세 강의 이름을 서술하는 문장은 모두 두 구성소 명사문장이나 이 문장만 세 구성소 명사문장이다. 제3 요소가 강조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견해에 따르면 본 문장에서는 ‘넷째 강’에 강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문장의 전후 문맥에서 ‘넷째 강’에만 강조가 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술어인 ‘유프라테스’에 강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무라오카의 견해를 따르자면 그 경우 제3 요소는 가운데 위치해서는 안되고 문장의 끝에 위치해야 한다. 이 문장의 전후 문맥에서 문장 전체가 강조되었다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성경 전체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 강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그 강이 에덴에서 출발하는 넷째 강이라는 사실을 저자가 부각시키려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시킨데다가 동사 앞에 제3 요소를 한 번 더 추가시킴으로 그 문장을 강조한다. 세 구성소 동사문장에서는 강조의 역할 외에 분리의 역할을 더 부여할 수 있다.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경우 주어와 한 어절로 구성된 것이 거의 대부분인 반면에 세 구성소 동사문장의 경우 주어와 한 어절로 구성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두 어절 이상이며 심지어 17어절(신 19:5), 18어절(창 24:7)로 구성된 것도 있다. 따라서 긴 주어로 구성된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분리하는 역할을 제3 요소가 하는 것이다.⁶⁶⁾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두 가지 역할, 즉 강조와 평형을 잡아주는 것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한다. 다시 말하면 그 두 가지 역할 중 어느 하나만을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강조의 역할만을 이야기한다면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다양한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평형의 역할만을 이야기한다면 제3 요소가 없는 두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주어보다 술어가 한정성이 낮은 문장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평형을 이루는 역할은 문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역할이고, 강조적 역할은 문장 외부, 즉 다른 문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할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였다. (1)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는 계사인가? (2)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의 정체와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언어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9권의 책에서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을 대명사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모두 선별해 내었다. 이 과정에서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 대해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두 학자인 사판과 츠비의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 선별해 낸 문장들을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66) 세 구성소 동사문장에서 제3 요소는 주어와 술어를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주어와 술어의 평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어 순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는 단어 순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세 구성소 동사문장에서는 주어-대명사-술어(동사)만의 순서, 즉 제3 요소가 항상 주어와 술어 사이에만 위치한다.

(1)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는 계사가 아니다.

계사에 대한 학자들의 용어 사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을 계사로 정의했다.

- 1) 계사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것이다.
- 2) 계사는 문장 안에서 표면적인 단어로 나타나야 한다.
- 3) 계사는 의미론적 범주 ‘이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4) 계사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는 계사가 될 수 없음을 밝혔으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 1)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비율이 두 구성소 명사문장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난다는 점.
- 2) 세 구성소 문장이 명사문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문장과 분사문장과 하야문장에서도 나타난다는 점.

(2)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의 정체와 역할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가 계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 세 구성소 명사문장을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츠비의 견해와 무라오카의 견해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츠비의 견해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어순이 한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즉 한정성이 동일하면 제3 요소는 주어와 술어 가운데 위치하여 평형을 잡아주고, 주어의 한정성이 술어의 한정성보다 더 높으면 제3 요소가 문장 끝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한정성이 낮은 술어의 무게를 보충해줌으로서 평형을 잡아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보면 세 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 요소의 역할은 주어와 술어의 평형을 잡아주는 것임을 알게 된다. 제3 요소는 평형 저울과 같이 주어와 술어의 무게를 동일하게 유지시키면서 문장 전체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주어나 술어 어느 한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술어의 한정성의 정도에 따라 그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주어와 술어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조와 평형을 잡아주는 두 가지 역할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세 구성소 명사문장의 제3 요소는 내부적으로는 한정성의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적으로는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해 문장 전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어>(Keywords)

세 구성소 명사문장, 명사문장, 계사, 격결림 구조, 한정성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Nominal Sentences, Copula, Casus Pendens,
Definiteness

(투고 일자: 2013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3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10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69-91.
권성달, “성서 히브리어 명사문장에서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29 (2011), 7-32.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도서출판 한세본, 2006.
양정석,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2001), 337-393.

- Albrecht, C., “Die Wortstellung im hebräischen Nominalsatz”,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ZAW 8 (1888), 249-263.
Andersen, F. I.,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gdon Press, 1970.
Bartelmus, R.,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äischen “Allerweltswortes”*, St Ottilien: EOS Verlag, 1982.
Bendavid, A., *Biblical Hebrew and Sages Hebrew* (written in Hebrew), vol. 2 Tel-Aviv: Dvir Co. Ltd, 1971.
Brockelmann, C., *Syntax*. vol. 2 in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Berlin: Verlag von Reuther & Reichard, 1913.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enses in Hebrew*,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Ewald, H., *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Bundes*, Göttingen: Dieterich, 1870.
Gibson, J. C. L.,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Edinburgh: T&T Clark, 1994.
Jouion, P.-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print of First Edition with Corrections,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Kautzsch, E. *Gesenius’ Hebrew Grammar*, Late E. Kautzsch stc. ed. (A. E. Cowley, re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0.
Merwe, C. H. J. van der, Jackie A. Naudé and Jan H. Kroeze, *A Biblical Hebrew*

-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5.
- Muraoka, T.,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Indiana: Eisenbrauns, 1999, 187-213.
- Niccacci, A., "Types and Functions of the Nominal Sentence",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Indiana: Eisenbrauns, 1999, 215-248.
- Nöldeke, T., *Compendious Syriac Grammar* (2nd ed.), J. A., Crichton, trans., Indiana: Eisenbrauns, 2001.
- Ornan, U., "Syntax", *Encyclopedia Judaica*, Vol. 8, Jerusalem: Keter, 1971, 124-146.
- Ornan, U., *A Simple Sentence* (written in Hebrew), Jerusalem: Academon, 1979.
- Rabin, C., *Biblical Hebrew Syntax* (written in Hebrew), Jerusalem: Shmuel Sokolnikov, 1996.
- Rosen, H. B., *Contemporary Hebrew*, Paris: Mouton, 1977.
- Rubinstein, E., *A Nominal Sentence in Contemporary Hebrew* (written in Hebrew), Ph. D. Dissertation, Tel-Aviv University, 1969.
- Sapan, R., *Haichud Hatachbiri Shel Lashon Hashira Hamiqrait Bitqufat Haclasis* (written in Hebrew), Jerusalem: Hotsaat Qiryat-Seper, 1981.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ndiana: Eisenbrauns, 1990.
- Zewi, T., "The Definition of the Copula and the Role of 3rd Independent Personal Pronouns in Nominal Sentences of Semitic Languages", *Folia Linguistica Historica* 17 (1996), 41-55.
- Zewi, T.,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G. Goldenberg and S. Raz, ed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 Zewi, T., *Hahasvot Hatachbiryot Hachruchot Bemivne Hapunktzionali Shel Hamishpat BeivritMiqrait* (written in Hebrew), Doctoral Dissertation (Hebrew University), 1991.

<Abstract>

A Study on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Prof. Sung-Dal Kw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refer to those verbless nominal sentences that include a third constituent (usually a 3rd person pronoun or a demonstrative) in addition to a subject and a predicate. In the realm of Biblical Hebrew linguistics, the past 100 years have seen constant research on nominal sentences, and especially there are still differences among views of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lies the question of what the identity and roles of the third element other than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that is to say the third person pronoun or the demonstrative (let's call this third element special pronoun) are in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The first task of this study is to explicate whether the special pronoun in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is a copula, and the second is to investigate what its identity and roles are if it is not a copula.

In order to grasp the identity and role of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this study attempts at systematic and critical research on the basis of precise and diverse statistical data (our data was based on 2 Samuel, 1 Kings, 1 Chronicles, and 2 Chronicles). The results clarified that the special pronoun in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cannot be a copula. This is because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cannot b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properties as bipartite nominal sentences as the two are too different in many respects. It is also confirm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at views that regard the structure of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as extraposition or 'casus pendens' are difficult to accept.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identity and roles of the special pronoun, i.e. the second task of this study, it is found to play two roles. Its first role is emphasis. Many of the researchers who mention emphasis regard the pronoun as emphasizing the subject, while only a few researchers say that it can emphasize the predicate as they take it to emphasize what is right in front of it. However, this study claims that the special pronoun emphasizes not only the subject and

predicate but also the entire sentence in a tripartite nominal sentence. In tripartite nominal sentences, word order is not regularly determined, but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degrees of the definiteness of the subject and predicate, and hence plays the role of emphasizing the entire sentence.

The second role is balancing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Like weights of a scale, the special pronoun plays the role of lifting the entire sentence while balancing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That is to say, when the weights of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are identical (their definiteness being the same), it lifts the two in the middle of them. On the other hand, when the weight of the subject is lighter than that of the predicate, it plays the role of lifting the two while helping the predicate with relatively weak definiteness.